

애독 장려를 위한 공공도서관 방학독서교실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 서울 소재 4개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

Promoting Children's Love of Reading through Vacation Reading Programs in Public Libraries: Focusing on Four Public Libraries in Seoul

정진수 (Jin Soo Chung)**

목 차

- | | |
|--------------|------------|
| 1. 서론 | 5. 연구결과 |
| 2. 독서와 공공도서관 | 6. 토론 |
| 3. 선행연구 | 7. 결론 및 제언 |
| 4. 연구방법 | |

초 록

본 논문은 독서습관 형성과 독서의 생활화라는 목적을 추구하는 공공도서관을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애독을 장려하는 '즐거운 독서'의 개념과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고 전통적인 어린이 대상 독서프로그램의 하나인 방학독서교실프로그램 전반을 검토 분석하여 프로그램의 방향제시를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 교육청 소속 4개의 도서관으로부터 2013년 겨울과 여름독서교실 자료를 수집하여 (1) 독서교실의 목적, (2) 독서교실기간, 대상, 모집방법 및 수료인원, (3) 독서교실 담당강사, (4) 독서교실 프로그램 내용구성, (5) 독서교실 선정도서, (6) 독서교실 수료증과 보상에 관한 사항들을 검토분석 하였다. 마지막으로 즐거운 독서관련 선행연구 분석에서 도출된 요소를 적용하여 애독을 장려하는 즐거운 독서를 위한 방학독서교실프로그램 실태를 토론 및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공공도서관의 독서교실 확대 운영을 통한 어린이 애독문화 확대를 제안하였고 향후 애독 장려관점의 공공도서관의 독서교실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suggest a conceptual framework for the vacation reading programs in promoting children's love of reading in public libraries. Within the conceptual framework of free voluntary reading (FVR), the study identified the concept of reading that public libraries should pursue in developing children's reading programs and analyzed current vacation reading programs that four public libraries in Seoul held during winter and summer vacations of 2013. More specifically, the study analyzed (1) their purposes, (2) durations, targeted children groups, the number of children users, (3) their instructors, (4) the content design of the programs, (5) selected books, and (6) completion certificates and rewards for participation. Lastly, the study discussed whether the programs satisfied the characteristics for promoting free voluntary reading and played the roles for vacation reading programs in public libraries. The results of the study suggest the need for shifting the current vacation reading programs to be more inclusive, so that more children can develop to learn love of reading.

키워드: 즐거운 독서, 독서교실, 방학독서교실, 어린이독서프로그램, 공공도서관
Summer Reading Program, Reading for Pleasure, Pleasure Reading, Free Voluntary Reading, FVR, Leisure Reading, Free Reading, Independent Reading, Recreational Reading, Public Libraries

* 본 논문은 2012년 덕성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덕성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jschung@duksung.ac.kr)

논문접수일자: 2014년 1월 15일 최초심사일자: 2014년 2월 3일 게재확정일자: 2014년 2월 11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8(1): 195-214, 2014. [http://dx.doi.org/10.4275/KSLIS.2014.48.1.195]

1. 서론

“우리는 좋은 책에 대해 가르칠 것이 아니라 애독(愛讀)을 가르쳐야 한다.”

(We should not teach great books, we should teach love of reading.)

-- B. F. Skinner

우리는 어린이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함께한다. 전통적으로 문(文)을 숭상하던 유교 문화 속에서 심지어 “책 도둑은 도둑이 아니다”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어린이 독서 욕구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그러한 사회문화적 인식은 그대로 어린이들에게 전달되어 어린이들 역시 독서가 유익한 활동이라고 여기고 있다(정진수 2011; 김순남 외 2012).

그러나 안타깝게도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우리 문화가 어린이 애독(愛讀)으로 연결되고 있지 않다. 여가 시간에 스스로 책을 읽는다고 답변한 초등학생은 9.7%, 중학생은 3.6%, 고등학생은 2.6%에 불과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의 여가생활 가운데 독서의 비중은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김순남 외 2012). 오늘날 어린이들은 전통적인 대중매체인 TV와 함께 오늘날 급변하는 정보환경이 제공하는 화려한 멀티미디어 오락용 콘텐츠 생산과 소비가 급증함에 따라 그러한 오락콘텐츠의 소비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자라나고 있다. 따라서 정적인 집중력과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독서활동이 오늘날 정보환경 속에서 쉽게 접근 가능한 흥미위주의 오락콘텐츠에 주요 여가활동의 자리를 내어주고 있는 것이다(김순남 외 2012).

그런데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바로

“‘독서’와 ‘즐거움’을 연관된 개념으로 여기지 않는 어린이들의 인식”이다(Irving 1980). 전사회적으로 독서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린이들이 스스로 독서를 하지 않는 현상을 볼 때 독서가 즐거운 경험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어린이들이 애독자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사회적, 제도적 장치로서 공공도서관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Krashen 2004). 어린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교육과정과 학습목표에 따라 체계적인 학습과 독서 활동이 이루어지지만 학교 교실에서의 독서교육이 한계가 있다고 교장과 교사들이 인정하고 있다(Peterson 2013). 따라서 독서와 관련하여서는 공공도서관이 학교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일상생활 영역 속의 애독문화형성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여가 활동으로 스스로 독서를 선택하여 즐기는 애독자가 되도록 역할을 담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 그러나 현재의 공공도서관은 이러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한윤옥, 이연옥 2008).

본 논문은 애독 장려의 관점에서 공공도서관 어린이독서프로그램을 살펴보고자 하며 구체적으로 공공도서관의 방학독서교실프로그램을 검토·분석하고자 한다. 1971년부터 시작된 독서교실은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전통 있는 어린이 독서프로그램이다. 2013년에도 겨울 방학 독서교실은 전국 452개관, 여름방학 독서교실은 499개관에서 운영되어 대표적인 공공도서관 어린이독서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2013). 특히 학교 교육활동이 중단된 방학기간에 공공도서관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라는 특징이 있어 지역 학부

모 및 어린이 이용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주요 어린이 독서프로그램이 과연 최근의 독서 연구가 제시하는 경향에 부합하는 애독 장려 요소들을 갖추고 향후 독서를 스스로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논문은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독서프로그램의 방향성을 고민하는 연구자와 사서에게 어린이 애독 장려를 위한 방학독서교실프로그램 설계와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2. 독서와 공공도서관

2.1 '독서'의 정의

'독서'를 문자 그대로 풀어보면 '책을 읽다'의 의미가 있어 '책'이라는 매체와 '읽는다'고 하는 행위가 결합된 용어이다. 하지만 오늘날 독서의 의미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는다.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 다양한 정보매체가 있어 책이라는 종이매체를 통해서만이 '읽는' 행위가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각종 전자자료 역시 '읽을'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독서'와 '읽기'는 의미상으로는 크게 구분되지 않는다. 다만, '읽기'는 현재 초등학교 국어 과목 중 하나이며 정확하고 분석적인 독해학습을 요구하기 때문에 '읽기'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어린이들에게 읽기는 곧 독해와 국어 학습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김순남 외 2012). 이러한 관점에서 '읽기'의 의미는 영미권 독서교육 학자들이 독서의 첫 단계로 일컫는 'learning to read'와도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이후 문자를 배우고 익히며 문자사용을 이해하는 단계로서 'learning to read'를 바탕으로 독해 이상의 것을 배우고 소화할 수 있는 행위가 가능하게 되며 이것이 바로 'reading to learn' 영역이다.

김순남 등(2012)은 과거보다는 넓은 관점의 개념과 범위를 적용하여 독서의 의미를 정의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독서를 낭독, 암송, 묵독, 독해, 사고 작용뿐만 아니라 하나의 문화적 행위라는 의미까지 담고 있다고 정의하였다. 과거에는 독서를 "사람됨의 과정"과 "문화를 전수받는 엄숙한 행위"(김순남 외 2012, 13)로 인식하였으나 오늘날 독서는 엄숙한 행위로만은 인식되지 않는다.

요사이의 다양한 목적의 독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면서 독서의 의미가 확대되고 있다. 더하여 도서관, 학교, 독서관련 각종 단체의 행사 등이 독서 행위를 장려할 뿐 아니라 독서를 통한 사회적인 교류를 의도적으로 유도하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통해 독서문화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확대된 독서의 의미에 따라 독서를 장려하는 교육과 문화 역시 장려하는 주체에 따라서 다양해지고 있다.

2.2 공공도서관의 독서

도서관법 제28조에 따르면 공공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 교육센터로서 기능을 수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동법 제28조 3항에서 공공도서관은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가 주요 업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는 공공도서관이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이라

는 것을 뒷받침한다.

‘독서의 생활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일상적 독서의 개념이 중요시 된다. 또한 일상적 독서는 학습이 아닌 학습이나 노동이 아닌 즐거움과 만족감이 바탕이 된 독서의 개념을 추구하므로 독서의 즐거움이 중요하다. 그래서 ‘즐거운 독서’(Reading for Pleasure) 또는 ‘Pleasure Read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는 자발적 의지로 독서 행위 자체에 대해 즐거움과 만족감을 가지는 독서의 개념을 강조한 독서이다. 즐거운 독서는 여러 다른 용어와 혼용되어 쓰이기도 하는데 많이 쓰이는 영문용어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주요 여가 활동으로서의 독서를 강조한 ‘Leisure Reading’, 읽을 책의 개인적인 선택을 중시하는 독서로서 ‘Free Reading’, 강요되지 않은 자주적인 독서를 강조하는 ‘Voluntary Reading’과 ‘Independent Reading’(Culliman 2000), ‘Free Reading’과 ‘Voluntary Reading’의 개념을 결합하여 동시에 두 가지를 강조한 ‘Free Voluntary Reading’(FVR: Krashen 2004), 책 읽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Recreational Reading’(Manzo and Manzo 1995), ‘Reading for Pleasure’, 또는 ‘Pleasure Reading’ 등이 있다.

위에 언급된 독서관련 용어와 개념들은 모두 독자의 내재적 동기를 우선으로 강조하는 애독을 위한 독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위의 개념들을 모두 포괄하여 ‘즐거운 독서’를 정의하고 이에 집중하여 논의를 계속하고자 한다.

3. 선행연구

3.1 애독의 중요성과 효과

독서는 몰입을 경험하는 활동이다(Csikszentmihalyi 1991).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몰입하여 즐길 수 있는 독서에 대한 중요성은 여러 학자들에게 의해 보고되고 있다. 다수의 연구 중 최근 애독의 중요성을 알리는 매우 의미 있는 연구결과(Sullivan and Brown 2013)가 런던대학교 교육연구소(Institute of Education)에서 발표되었다. 런던대학교 교육연구소의 Sullivan과 Brown¹⁾은 5세, 10세, 16세까지 약 6,000명의 데이터를 근거로 평소 독서를 즐기는(Pleasure Reading)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학업성취도가 높다는 결과를 도출했다(2013). 구체적으로 즐거운 독서가 인지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독서를 즐기는 학생들이 특히 수학, 어휘, 철자법 학습에 있어 빠른 발달을 보였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리고 독서를 즐기고 정기적으로 도서관에 방문하고, 또한 신문을 읽는 16세 학생들의 인지발달 정도는 부모가 고학력인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4배나 빨랐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여 부모의 학력보다 일상적으로 즐기는 독서행위가 인지발달에 더 중요한 요인임을 보고하였다. 더불어, 어린 시절 독서의 경험 역시 청소년기의 학업성취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5세 때 부모가 책을 읽어주었던 16세 학생들은 5세 때 부모가 책을 읽어주지 않았

1) 이 연구는 1970 British Cohort Study(BCS70)에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여 수행되었다. BCS70은 1970년 특정한 일주일 기간 중에 영국에서 태어난 17,000명의 아기들에 대한 서베이를 시작으로 그들이 5, 10, 16, 26, 30, 34, 38, 42세에 서베이를 실시하여 총 8회에 걸친 연구데이터를 수집했고 46세가 되는 2016년 서베이 또한 예정된 영국의 거대 종단연구 프로젝트이다.

던 16세 학생들보다 수학, 어휘, 철자법에 있어 모두 나은 학업성취를 이루었다고 밝히고 있다.

애독의 중요성을 학업성취의 관점에서 증명한 다수의 연구를 고찰하고 비교분석한 Krashen (2004)은 자유롭게 자발적인 독서 학생들의 학업성적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보인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흥미롭게도 주어진 본문을 읽고 독해하는 전통적인 독서교육 방식과 자유롭게 자발적 독서를 하도록 하는 방식을 비교한 54개의 연구 중 51개의 연구에서 자유롭게 자발적인 독서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읽기 능력 점수가 전통적인 독해교육을 받은 학생들보다 같거나 높은 성적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 분석 결과를 통해 Krashen은 자유롭게 자발적인 독서는 학업적 성취 뿐 아니라 즐거움도 함께 누릴 수 있어 분명한 강점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국내에서도 즐거운 독서가 초등학생들의 독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 이연옥(2012)은 학업 성취를 강조하는 독서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초등학교의 학생들보다 즐거운 독서 중심의 독서교육을 운영하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독서태도가 더 긍정적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자유 독서는 또한 외국어 습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Elley and Mangubhai 1983; Mason and Krashen 1997). 외국어로 쓰인 책을 자유롭게 지속적으로 독서한 학생들은 여러 가지 유형의 외국어테스트에서 우수한 결과를 얻었고(Stokes, Krashen and Kartchner 1998; Lee, Krashen and Gribbons 1996) 더 많은 독서를 하도록 하였으며 쓰기실력 향상에 영향을 주었다(Kim 2004).

3.2 독서관련 선행연구가 제시하는 공통점

즐거운 독서의 중요성을 제시하는 모든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중요하다고 꼽고 있는 것은 풍부하고 다양한 책과 도서관의 접근성이다. 책과 도서관접근성이라는 선행 조건을 통해 독서를 위한 강력한 동기부여 요인인 읽을 책의 선택이 폭넓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즐거운 독서를 전통적 독서지도와 구분하여 그 차이점을 설명한 영국의 National Literacy Trust(김은하 2010, 재인용)에 따르면 즐거운 독서가 강조하는 것은 전통적인 독서지도의 그것과는 다르다(〈표 1〉 참조).

〈표 1〉 즐거운 독서와 독서지도의 비교

즐거는 독서가 강조하는 것	독서지도가 강조하는 것
1. 읽을거리의 선택	1. 읽기에 대한 학습
2. 의지	2. 기능
3. 몰입과 독자의 반응	3. 글자 깨치기와 독해
4. 평생 독자	4. 체계적인 독해
5. 아동이 원하는 방향	5. 교사지도 방향
6. 아동 중심	6. 교사중심
7. 성취	7. 점수
8. 장기목표(평생독자의 창조)	8. 단기목표(1단계, 2단계...)
9. 개별화	9. 표준화

(김은하 2010, 380, 재인용)

Gordon(2010)은 기존의 독서관련 연구결과를 아래와 같이 요약·제시하면서 실제 도서관 현장에서 독서프로그램 설계시 참고하도록 하였는데 역시 책에 대한 접근성과 경험, 그리고 읽을 책의 자유로운 선택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즐거운 독서로서의 방학독서프로그램의 중요성 또한 제시하고 있다.

- 독서는 하면 할수록 잘하게 된다(Shin 1998; Dewey 1916).
- 독서와 관련된 사회적 교류가 독서에 동기를 부여한다(Guthrie and Wigfield 1997).
- (읽을 책의) 자유로운 선택은 독서동기의 요인이다(Guthrie and Davis 2003).
- 자유로운 자발적 독서는 직접교수방식의 독서 교육 결과만큼 또는 그보다 더욱 효과적이다(Greaney 1970; Krashen 2004).
- 사람들은 책에 대한 접근성이 있을 때 독서한다(Krashen 2004).
-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포괄적인 여름방학독서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중요하다(Gordon and Lu 2008).
- 즐기는 독서는 독서경험 자체가 보상이어야 한다(Krashen 2004).

3.3 도서관 방학독서프로그램

미국의 공공도서관에서는 약 3달의 긴 방학동안 이루어지는 방학독서프로그램을 흔히 여름독서프로그램(summer reading programs)이라고 칭한다. 그러한 여름독서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긴 방학기간에 집중적으로 독서(extensive reading)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Lu

and Gordon 2007). 학교 교육활동이 중단되는 방학기간에는 독서에 대한 접근성과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학업수행능력을 발전시키기 보다는 퇴보시킨다는 점(Cooper et al. 1996)에서 지속적인 독서기회와 경험을 갖도록 하는 방학독서프로그램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여름독서프로그램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4개의 주요 내용으로 분류할 수 있다(Barsen and Moor 2011, 1).

- 소외계층 어린이들의 방학기간학습손실에 대한 영향이 컸음
- 책에 대한 접근성과 독서시간 확보는 독서를 하도록 하는 주요요인임
- 성공적인 독서경험은 차후에 독서의 자발성과 독립성에 영향을 줌
- 여름독서프로그램의 활성화로 여름 독서를 습관화 하여야 함

전 미국 도서관의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연방기구인 IMLS(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s)의 정책 및 예산 지원을 받아 전 미국 11개의 지역에서 여름방학독서프로그램의 효과를 검토한 도미니칸 연구(Roman, Carran and Fiore 2010) 결과를 살펴보면 방학독서프로그램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공공도서관이 제공하는 여름방학독서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보다 방학 직후 다음 학기 학업성취가 높았으며 여름방학기간의 독서경험으로 개학 후 학교생활에 더욱 긍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어 가능한 많은 어린이 청소년들이 여름방학 독서 프로그램에 참여해

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디지털환경을 이용한 웹기반 상호교류 기회를 제공한 여름독서프로그램의 연구에서 고등학생들은 전반적으로 웹기반 여름독서프로그램에 만족감을 보였으나 흥미롭게도 특징적 요소였던 웹기반 상호교류가 최소한으로 이루어졌다는 결과가 제시되었다(Lu and Gordon 2007).

국내 독서교실은 처음 시작된 1971년 이래 현재까지 공공도서관의 주요 어린이 독서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다. 황금숙과 김수경(2008)은 독서교실프로그램 개발을 돕도록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을 위한 모형제시를 하였으며 김수경(2007)은 독서의 본질에 가까운 즐거운 책읽기를 강조하는 공공도서관 독서교실운영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김수경(2006)은 또 다른 연구에서 즐거운 책읽기의 원칙으로서 즐거움, 자율성, 무상성을 들었다. 김은하(2012)는 즐거운 독서를 강조하면서 공공도서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즐거운 독서 관점의 독서프로그램으로서 '책수리 마수리'를 개발 및 보급하여 독서교실을 비롯한 어린이독서프로그램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4. 연구방법

4.1 연구 자료 수집과 분석

본 연구를 위해 서울시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4개관의 협조를 받아 2013년 겨울과 여름

독서교실의 운영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분석하였다. 교육청 소속 도서관들은 전통적으로 독서교실을 운영하여 왔으며 소속 사서들 역시 독서교실 운영경험이 풍부하다고 볼 수 있다. 운영계획과 결과에 대한 질적 분석을 위하여 서울시 교육청 소속 도서관들을 대상으로 2013년도 독서교실프로그램 자료 요청을 하여 협조에 응한 4개관을 각각 가, 나, 다, 라도서관으로 별명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분석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자료에 있어 불분명하게 모호한 점이 있으면 담당사서와 전화면담을 진행하여 정확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하여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제출된 전국 공공도서관의 2013년 겨울 및 여름 독서교실 운영현황에 관한 통계자료²⁾를 이차 분석 자료로 활용하여 4개관의 독서교실 프로그램 분석 결과를 뒷받침하였다.

4.2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자료 수집에 있어 제한점을 가진다. 모든 도서관의 독서교실 프로그램이 아니라 서울시 교육청 소속 4개관의 공공도서관 독서교실 프로그램의 운영계획서와 결과보고서만이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서울 지역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4개관에 대한 독서교실 프로그램 분석결과를 상세히 보고하여 비슷한 맥락과 상황의 공공도서관 독서교실 프로그램으로의 전이성(Transferability)을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는 지역적 특성이나 단위 도서관의 특성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공하지 않았다.

2) 전국 452개 공공도서관의 2013년 겨울독서교실 과 499개 공공도서관의 2013년 여름독서교실(표 참조) 운영현황과 결과에 대한 통계자료를 검토하였음.

5. 연구결과

애독을 장려하기 위한 즐기는 독서를 전반적으로 강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5.1 독서교실의 목적

4개 공공도서관이 제시한 방학독서교실 목적은 검토한 결과,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용어가 눈에 띈다. 먼저, 독서의 즐거움을 일깨워 주고자 하는 것이 주요 목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독서습관형성을 통한 독서의 생활화, 그리고 도서관 이용을 홍보하고 유도하는 것이었다. 라 도서관의 경우에는 즐거운 독서의 목적과 함께 사고력 훈련을 동반한 자기주도학습의 동기부여를 덧붙여 목적으로 하여 즐거운 독서와 학습 독서라는 두 가지 목적을 명시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가, 나, 다, 라 도서관의 독서교실 운영 목적을 종합적으로 볼 때 방학독서교실은

5.2 독서교실기간, 대상, 모집방법 및 수료인원

4개 공공도서관의 독서교실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독서교실 기간과 대상인원이 매우 제한적임이 확인되었다. 첫째, 각각의 독서교실 기간이 3일에서 5일로 긴 방학기간에 비교하여 매우 제한된 기간에만 운영되고 있었다. 둘째, 3개의 공공도서관 독서교실 모두 도서관별로 한 학년만을 선정하여 매년 해당학년을 등록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따라서 도서관별로 초등 3학년, 4학년, 또는 5학년이 각각 선정되어 해당 학년학생들만이 독서교실 등록의 혜택을 누린다. 셋째, 참가할 어린이 인원이 매우 제

〈표 2〉 독서교실의 목적

도서관명	방학	독서교실 목적
가도서관	겨울 여름 공통	- 어린이들에게 어려서부터 독서의 즐거움과 필요성을 깨닫게 하고, 바른 독서습관을 길러주며, 도서관에서의 폭넓은 학습경험으로 도서관이용 및 독서의 생활화를 유도하기 위함.
나도서관	겨울 여름 공통	- 어린이들에게 어려서부터 독서의 즐거움과 필요성을 깨닫게 하고, 바른 독서습관을 길러주며, 도서관에서의 폭넓은 학습경험으로 도서관이용 및 독서의 생활화를 유도하기 위함.
다도서관	겨울 여름 공통	- 학교교육에서 벗어나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초등학생들에게 학교 밖의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 어린이들에게 책 읽는 즐거움을 제공하고 나아가 독서하는 습관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도서관은 편하고 유익한 곳이라는 생각을 심어주고 도서관이용의 생활화를 꾀한다. - '나'에 대한 생각을 키워가는 초등 4학년 학생들에게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현재 속한 곳에서 주변을 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라도서관	겨울 여름	- 어린이들에게 독서교실을 통한 독서의 즐거움 발견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 올바른 독서태도를 길러 스스로 독서하는 습관 형성 - 도서관에서의 폭넓은 독서경험으로 도서관 이용의 생활화를 유도함 - 독서교실을 통해 독서의 즐거움 발견 및 자발적인 책임기 습관 형성 기여 - 독서토론 체험으로 사고력, 논리력, 표현력 향상으로 자기주도학습동기 부여 - 다양한 독서문화 경험을 통한 도서관 인식 제고 및 이용 활성화 유도

한적이었다. 각 도서관은 서비스 대상 지역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내 학교장 추천을 통해 다양한 학교에서 모집하였으며 남은 인원은 개별적으로 등록 신청을 받아 모집하였다. 그러나 학교장 추천요청 인원은 학교당 1명 또는 2명으로 그 수가 매우 제한적이었다. 또한 학교장 추천 요청공문에는 도서관에서 요구하는 기준은 독서교실 기간 내 충실히 참여할 수 있는 어린

이리는 기준을 명시하여 그 외 기준에 대해서는 학교장에게 일임하고 있다. 넷째, 매 방학교실을 위한 모집인원은 도서관별로 정해진 모집인원 수를 넘지 않도록 하였으며 수료인원은 모두 그보다 적었다.

전국적으로도 살펴봐도 공공도서관 방학독서교실은 대상인원에 있어 제한적이었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서교실을 수료한 초등

<표 3> 독서교실 기간, 대상, 모집방법 및 수료인원

도서관명	방학	기간	대상	모집방법	수료인원
가도서관	겨울	4일	초등4학년	지역 초등학교장 추천 및 개별접수	30명 모집/25명 수료
	여름	4일	초등4학년	지역 초등학교장 추천 및 개별접수	30명 모집/29명 수료
나도서관	겨울	3일	초등3학년	지역 초등학교장 추천 및 개별접수	30명 모집/24명 수료
	여름	3일	초등3학년	지역 초등학교장 추천 및 개별접수	30명 모집/21명 수료
다도서관	겨울	5일	초등4학년	지역 초등학교장 추천 및 개별접수	30명 모집/27명 수료
	여름	5일	초등4학년	지역 초등학교장 추천 및 개별접수	30명 모집/26명 수료
라도서관	겨울	4일	초등5학년	지역 초등학교장 추천 및 개별접수	46명 모집/41명 수료
	여름	4일	초등5학년	지역 초등학교장 추천 및 개별접수	30명 모집 22명 수료

<표 4> 2013년도 지역별 공공도서관 독서교실 수료인원(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2013)

지역	2013년 겨울독서교실 참여 학생		2013년 여름독서교실 참여 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서울	1,252	85	1,383	47
부산	657	0	551	0
대구	702	50	592	70
인천	605	20	770	6
광주	515	0	459	0
대전	343	0	431	0
울산	138	134	123	95
경기	2,693	42	2,630	75
강원	569	0	524	0
충북	546	0	634	0
충남	618	23	827	84
전북	842	31	710	39
전남	662	91	774	58
경북	369	0	620	2
경남	907	15	927	32
제주	265	0	324	0
총계	11,683	491	12,279	508

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더하여 고등학생들을 위한 독서교실은 아예 통계자료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중고등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입시위주 학습이 사실상 공공도서관에서의 독서활동을 제한하고 있으며 공공도서관은 상대적으로 초등학생들을 위한 방학독서교실프로그램에 집중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5.3 독서교실 담당강사

독서교실은 4개관 모두 담당 사서가 주도적으로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을 하였으며 외부 전문가는 필요에 따라 초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와 같이 어린이 책과 관련 깊은 동화작가, 북아트전문가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에게 인기 있는 놀이 활동인 아이클레이강사, 캐리커처작가, 연극배우도 초빙하였다. 또한 독서지도사가 초빙되어 영어스토리텔링, 책 놀이 등을 독서토론전문가 등 특정분야의 독후활동 지도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5.4 독서교실 프로그램 내용구성

4개 공공도서관의 독서교실은 독립적인 교실환경을 갖추고 있는 곳에서 진행되었으며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운영되었다(<표 6> 참조). 이들 독서교실프로그램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입교식과 수료식이 있다. 둘째,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마찬가지로 시간표가 제시되고 시간마다 특정 활동이 계획되어 있다. 셋째, 도서관 이용법을 안내하도록 하는 도서관 추적놀이와 같은 체험형 수업과 독서토론, 독서골든벨, 독서퀴즈, 독서감상문쓰기 등의 독후활동 및 아이클레이 북아트, 크래프트, 연극 등의 활동중심의 체험활동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넷째, 독서교실 등록 대상 학년 어린이들의 수준과 관심분야에 맞추어 주제가 선정되어 운영되었다. 다섯째, 4개관 중 3개관의 방학독서교실은 책 읽는 시간이 적은 시간이지만 주어졌다. 이와 같이 4개의 공공도서관 독서교실 모두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수준과 내용의 독서교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의도가 보였다.

<표 5> 독서교실 강사구성

도서관명	방학	강사구성
가도서관	겨울	사서 4명, 외부전문가(아이크레이, 북아트) 2명
	여름	사서 4명, 외부전문가(아이크레이, 북아트) 2명
나도서관	겨울	사서 2명, 외부전문가(독서지도사) 3명
	여름	사서 2명, 외부전문가(독서지도사) 3명
다도서관	겨울	사서 3명, 외부전문가(동화작가, 북아트) 2명
	여름	사서 3명, 외부전문가(동화작가, 캐리커처작가) 2명
라도서관	겨울	사서 2명, 외부전문가(동화작가, 연극배우, 전문강사) 3명
	여름	사서 2명, 외부전문가(작가, 독서토론강사) 3명

〈표 6〉 독서교실 일별프로그램 내용 구성현황

도서관명	방학	주제	프로그램 내용 구성	
가도서관	겨울	책으로 만나는 또 다른 세상	1일	입교식, 자기소개, 도서관바로알기, 독후활동으로 독서디베이트
			2일	메소드독서법으로 책 깊이 읽기, 지정도서독후활동으로 아이클레이로장 면 표현하기
			3일	지정도서 독후활동으로 책 속 주인공 팝업북 만들기
			4일	독서골든벨, 독서디베이트대회, 독후활동으로 직업탐험, 수료식
	여름	세계의 어린이, 우리는 하나	1일	입교식, 독서교실 여는마당, 세계책지도 만들기(도서관이용법), 독서활동
			2일	독후활동으로 아이클레이 세계국기만들기, 안녕투발루(책이야기나누기)
			3일	행복한 아침독서, 북아트를 활용한 세계친구만나오, 디지털자료 활용법
			4일	행복한 아침독서, 내꿈목록만들기, 2013 독서골든벨
나도서관	겨울	신나는 도서관 나들이	1일	도서관이용법 및 자료 찾는 법, 책속에서 위인만나다, 책읽기
			2일	책읽기, 영어스토리텔링, 독서감상문 쓰기
			3일	미술 수업, 독서 퀴즈 놀이, 독서교실을 마치며
	여름	책 속에서 여름나기	1일	도서관 이용법 및 자료 찾는 법, 동시에 부르는 나의 마음, 책읽기
			2일	책 놀이와 협동 그리기, 책읽기, 독서감상문쓰기
			3일	개성만점 독서신문 만들기, 독서퀴즈, 독서교실을 마치며
다도서관	겨울	우리 모두의 행복 찾기	1일	인사, 수업안내, 그림책활동
			2일	주제 도서읽고 독서토론
			3일	생활 속의 행복 찾기
			4일	나의 행복한 순간을 캐리커처로
			5일	신나는 독서퀴즈, 헤어지기
	여름	내미래는 내꺼야	1일	첫만남(인사나누기, 수업소개), 그림책으로 친해졌어요
			2일	신나는 독서토론
			3일	나를 찾는 솔직담백한 여행
			4일	내가 성장하는 북아트
			5일	이것만은 꼭! 나만의 버킷리스트, 헤어지기
라도서관	겨울	겨울방학은 도서관에서~	1일	입교식 및 자기소개, 자기주장훈련, 발표력향상, 책대출
			2일	도서관 아하 그렇군요, 도서관추적놀이, 독후내용발표, 책대출
			3일	아침독서, 동화작가만나기, 독후활동책가방만들기, 책대출
			4일	아침독서, 즐거운연극놀이, 설문조사 및 수료식
	여름	소통으로 행복을 꿈꾸는 나와 너	1일	입교식 및 자기소개, 도서관추적놀이, 작가와의 만남, 책대출
			2일	아침독서 및 이책을 소개해요, 독서토론의 이해, 독서토론스피치, 실습, 옷걸이독서대, 책대출
			3일	아침독서, 토론법강의 및 그룹토론, 설문조사

5.5 독서교실 선정도서

독서교실이 독립적인 공간에서 정해진 기간에 정해진 인원을 가지고 진행되기 때문에 독서교실 수업용 필독도서를 선정하여 진행되었다.

〈표 7〉과 같이 필독도서의 수는 도서관별 및 개별 방학독서교실별로 차이가 있어 적게는 1권에서 많게는 5권까지 선정되었다. 방학독서교실의 필독도서는 독서교실 기간 내 다양한 독후활동을 위해 독서교실 입교 전에 읽고 봐야 하는

〈표 7〉 독서교실 선정 필독 및 권장 도서

도서관명	방학	독서교실 선정도서
가도서관	겨울	필독도서 1권 도서관 및 독서단체 권장도서목록 제공 및 비치
	여름	필독도서 4권 도서관 및 독서단체 권장도서목록 제공 및 비치
나도서관	겨울	필독도서 5권 권장도서 30권 목록 배부
	여름	필독도서 5권 권장도서 35권 목록 배부
다도서관	겨울	필독도서 2권 도서관 및 독서단체 권장도서목록 제공 및 비치
	여름	필독도서 1권 도서관 및 독서단체 권장도서목록 제공 및 비치
라도서관	겨울	필독도서 및 권장도서목록 제공
	여름	필독도서 및 권장도서목록 제공

도서로서 어린이 참여자에게는 독서교실 등록 신청시 공지가 되었다. 그 외 권장도서목록을 배부하거나 권장도서 서가를 가까이 비치하여 손쉽게 접근하여 읽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6 독서교실의 수료증과 보상

4개 공공도서관의 독서교실에 등록하고 참여한 어린이들은 공통적으로 독서교실 종료시에

〈표 8〉 독서교실 수료증과 보상

도서관명	방학	수료증과 보상
가도서관	겨울	수료증수여: 독서교실 3일 이상 출석 + 수업관련 결과물 제출 상: 독서메모장(전원), 독서교실필독도서(전원), 그 외 소정의 상품
	여름	수료증수여: 독서교실 3일 이상 출석 + 독서감상문 제출 상: 독서메모장(전원), 독서교실 개근, 독후활동결과물 및 참여도 평가하여 소정의 상품
나도서관	겨울	수료증수여: 모든 과정 이수자 상: 기록 없음
	여름	수료증수여: 모든 과정 이수자 상: 기록 없음
다도서관	겨울	수료증수여: 독서교실 4일 이상 출석 상: 소정의 상품
	여름	수료증수여: 독서교실 4일 이상 출석 상: 소정의 상품
라도서관	겨울	수료증수여: 독서교실 3일(75%) 이상 출석, 독후감 1편 이상, 독후활동자료 1편 제출 상: 문화상품권 또는 소정의 상품
	여름	수료증수여: 독서교실 2일 이상 출석, 독후감 1편 이상, 독후활동자료 1편 제출 상: 문화상품권 또는 소정의 상품

수료증을 받는다. 비록 도서관별로 수료증 수여 기준은 모두 다르다 하더라도 참여한 어린이들에게 성취감을 주도록 하는 방법이다. 독서교실의 기간이 3일인 나도서관의 경우는 모든 과정을 이수해야 수료증을 수여하였으며 가도서관은 4일 중 3일, 다도서관은 5일 중 4일, 라도서관은 겨울독서교실의 경우는 4일 중 3일, 여름독서교실의 경우는 3일 중 2일 이상 참여한 어린이들에게 수료증을 수여하였다. 또한 가도서관의 경우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후원으로 독서메모장을, 지역도서관 관련 시민단체 후원으로 독서교실용 필독독서를 참여자 전원에게 상품으로 지급하기도 하였다. 라도서관은 문화상품권 또는 소정의 상품을 독서교실을 수료한 어린이들에게 수여하였다. 독서교실에서 일종의 보상의 의미로 수여하는 상품은 모두 책과 도서관련 문화상품이었다.

6. 토 론

본 절에서는 즐거운 독서관련 이론과 연구 분석을 통해 공통적으로 발견된 요소를 적용하여 4개관의 방학 독서교실 프로그램에 대해 토론하고자 한다. 또한 4개관의 방학독서교실 프로그램이 자유롭고 자발적 독서의 한 유형으로서 역할을 담당하도록 구성되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1)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가?

4개 공공도서관의 독서교실은 사전에 공지된 필독도서 독후활동 위주로 진행된 프로그램이었다. 따라서 독서교실프로그램 자체는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는 기회보다는 각 도서관별로 선정된 필독도서위주 체험독후활동을 위해 대부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4개의 공공도서관 모두 권장도서목록을 배부하거나 권장도서를 비치하여 독서교실 수업시간 외에 접근하도록 유도하거나 일부 시간을 할애하여 독서활동을 하도록 였으나 일주일이라는 기간 이내로 개설되는 독서교실프로그램 자체가 직접적으로 “독서”자체를 할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을 전적으로 충분히 보장해 주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독서교실프로그램은 필독도서 독후활동위주 프로그램과 일주일 이내라는 독서교실 기간설정이 극복해야할 점이라고 본다.

(2) 자유롭고 자발적인 독서가 보장되는가?

독서의 생활화를 유도하려면 자유롭고 자발적인 독서가 기본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강요된 독서가 습관으로 이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4개관의 방학독서교실에서는 필독도서 위주 독서교실 사서(또는 강사) 주도 교육활동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고 자유롭고 자발적인 독서시간은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적은 시간이 보장되었다. 예를 들어, 가 도서관의 “행복한 아침독서,” 나 도서관의 “책 읽기,” 그리고 라 도서관의 “아침독서”와 같이 자유롭게 책을 읽을 시간을 주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많은 조사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모두 독서 시간의 부족(김순남 외 2012)을 독서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어 독서 시간 보장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시하고 있다. 현재의 독서교실 프로그램이 유연성 있게 확대되어 자유롭고 자발적인 독서를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 등 여건을 만들어줄 필요성이 있다.

(3) 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가?

다수의 선행연구들이 뒷받침하듯이 읽을 책의 선택권은 독서의 내재적 동기를 위해 중요한 장치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4개관의 독서교실은 수강 자체를 위해서 필독독서가 사전공지 되었다. 이미 독서교실을 등록하기 전에 필독독서가 사전 공지되고 독서교실 참여하기 전에 미리 읽고 오도록 하여 독후활동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계획한 것이다. 필독독서의 선정은 독서교실의 주제에 따라 이루어지며 독서교실 프로그램 자체가 학습과 흥미유발 활동으로 구성될 경우에는 독후활동이 아닌 특강을 중심으로 편성되기도 하였다. 필독독서 이외에 모든 독서교실프로그램이 독서교실 수강생들에게 권장도서리스트 또는 권장도서 비치 서가를 안내하여 독서교실 기간 내에 매일 운영되는 독서교실 프로그램이 끝난 후 읽고 싶은 책을 대출하거나 열람하도록 권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독서활동은 독서교실이 운영되는 기간 중 매일의 독서교실 수업 종료 후 각자 개인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매우 아쉽다. 애독 장려를 위해서는 독서교실 기간 내에 단순히 읽고 싶은 도서를 대출하도록 하는 것을 넘어 방학기간에 지속적으로 실제 독서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장치가 가장 필요하다고 본다.

(4) 독서 동기를 유도하는 사회적 교류의 기회가 있었는가?

독서 자체는 개인적인 인지활동이지만 독자들에게 상호교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독서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개인 독자의 독서 활동을 심화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어린이 독자를 모아 함께 프로그램운동을 하는 독서교실의 존재 자체가 사회적 교류의 기회 제공이다. 다만, 교류활동이 일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 방식을 신중하게 결정하여 쌍방향 교류를 강조하여야하며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형식적인 교류 기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는 점이 강조가 되어야 하겠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제시하였듯이 웹기반의 온라인상 상호교류 보다는 직접 대면하는 방식의 상호교류기회가 방학기간 전반에 제공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5) 독서경험 자체가 독서의 보상으로 주어지나?

독서의 보상은 외부적 보상이 아니라 독서경험 그 자체여야 독서의 생활화를 유도하게 된다는 것은 독서관련 교육심리학의 꾸준한 연구 결과(Krashen 2003; 2004)이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독서를 하면 보상을 해준다'는 보상 인식이 '외부적 보상을 위해 독서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매우 위험하다고 말한다. 독서는 내재적 동기를 바탕으로 독서 자체를 즐거운 경험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함에도 독서 경험 자체보다는 보상이 목적인 활동이 되어 버린다. 더욱이 독서에 대한 외부적 보상은 보통 경쟁을 통해 주어지곤 하는데 이러한 방식은 보상은 좋아하지만 진지한 독서는 꺼리는 독자를 만들어 낸다고 경고한다(Gordon 2010).

본 연구에서 분석된 독서교실에서는 독서교실 수료시 주어지는 외부적 보상이 있었다. 그런데 외부적 보상은 모두 독서와 관련된 물건들이었으며 외부적 보상을 위해 독서교실에 참

여하였다고 말하기는 어려웠다. 가도서관의 경우 독서교실을 3일 이상 출석한 어린이에게 독서메모장과 독서교실 필독독서를 수여하였다. 외부적 보상이기는 하였으나 어린이간 경쟁을 유도하다기 보다는 개인별 성취를 유도한다는 점과 보상이 독서관련물품이라는 점에 있어서 신중하게 고민한 흔적이 보이는 보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보상은 독서 습관 형성에 긍정적이지 않다는 선행 연구 결과를 기억해야 할 것이다.

(6) 어린이 개개인이 개별적인 목표를 세우고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가?

4개관의 독서교실은 모두 독서교실 기간의 일정기간 이상 출석하는 어린이들에게 수료증을 수여하여 독서교실 출석이라는 목표자체를 세우도록 독서교실프로그램이 목표설정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그 외에 독서교실을 통해 개별적인 목표를 세우고 성취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지도는 부족해 보였다. 개별적인 목표를 세운다는 의미는 개개인이 개별목표에 따라 능동적으로 행동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독서 그 자체 활동에 대한 개인적인 목표를 세워서 이를 단계별로 성취하도록 강요 아닌 안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독서 권수, 독서 시간을 포함하여 다양한 관점에서의 개인적인 목표설정이 이루어지도록 장치를 마련하여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7) 방학독서프로그램이 많은 어린이들에게 장기간 혜택을 주도록 포괄적으로 운영되는가?

공공도서관 방학독서프로그램의 운영목적은

여가시간이 갑자기 늘어난 방학기간에 학령기 어린이들에게 독서를 하도록 안내하여 독서습관을 형성하고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선행연구의 분석에서도 제시하였듯이 방학독서프로그램의 혜택을 방학기간 가능한 다수의 어린이들이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대상인 4개관의 현재 독서교실은 등록대상 어린이 수와 학년에 있어 매우 제한적이어서 포괄적으로 모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말할 수 없다. 4개관 독서교실은 모두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기본운영지침에 따라 방학 기간 중 5일 이내의 독서교실을 운영하고 있었고 독서교실 당 등록 인원수를 40명 이내로 제한하였다. 공공도서관이 위치한 지역 내 어린이들의 수를 볼 때 독서교실 수강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어린이의 수는 극히 제한적인 인원이다. 또한 도서관별로 학년을 정해놓고 해당학년 어린이만을 모집하고 있었다. 누구라도 해당학년이 되면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는 시각에서는 공평하지만 참여를 원하는 다수의 어린이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으므로 현재의 방학독서교실 프로그램은 포괄적인 프로그램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방학독서교실은 특히 소외계층 어린이들에게 방학기간 중요한 독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소수의 어린이들에게만 등록을 제한할 경우, 정작 방학독서프로그램이 필요한 어린이들이 등록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가 발생한다. 개학 후 소외계층 어린이는 독해능력이 있어 평균 3달 퇴보한데 비해 중산층 어린이는 평균 1달이 퇴보했다는 연구결과는 방학독서프로그램이 포괄적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제공되어야 함

을 강력히 뒷받침한다(Alexander and Entwisle 1996; Gordon 2007).

7. 결론 및 제언

본 논문은 독서습관 형성과 독서의 생활화라는 장기목표 달성을 추구하는 공공도서관을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애독 장려의 관점에서 즐기는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고 전통적인 어린이 대상 독서프로그램의 하나인 방학독서교실을 검토 분석하여 공공도서관 목적에 맞는 방학독서교실 프로그램의 방향제시를 하였다. 구체적으로 서울시 교육청 소속 4개의 도서관으로부터 2013년 겨울과 여름독서교실 자료를 수집하여 (1) 독서교실의 목적, (2) 독서교실기간, 대상, 모집방법 및 수료인원, (3) 독서교실 담당강사, (4) 독서교실 프로그램구성, (5) 독서교실 선정도서, (6) 독서교실 수료증과 보상에 관한 사항들을 검토분석 하였다. 마지막으로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요소를 적용하여 방학독서교실이 과연 애독을 장려하는 즐기는 독서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리고 즐기는 독서를 위한 방학독서교실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공공도서관 방학독서교실 프로그램의 목적에도 제시되었듯이 방학독서교실 프로그램은 어린이 애독을 장려하는 관점에서 독서의 즐거움을 경험하고 몰입할 수 있는 기회부여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해야 한다. 선행연구 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즐거운 독서, 일상적 독서, 자유롭고 자발적인 독서는 학업성취 및 인지발달의 주요 변수로 알려진 부모의 학력보다도 더 영

향력을 미치는 변수였고(Sullivan and Brown 2013) 독서를 즐기고 좋아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하는 프로그램과 전략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방학기간 중 어린이들의 학습손실이 매우 크다는 사실은(Cooper 외 1996) 방학기간 및 방과 후 등과 같은 학교 교육 외 시간에 일상적으로 독서를 하는 문화를 형성하고 유지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도서관 독서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그러한 관점을 이론적 틀로 하여 2013년 겨울과 여름에 운영된 서울시내 4개의 공공도서관 방학독서교실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방학독서교실 기간 및 등록대상 집단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긴 방학기간에 비해 매우 짧은 3일에서 5일 정도에 불과한 기간에 약 30-40명 정도의 소수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방학독서교실 운영 목적인 독서의 생활화라는 애독 문화 형성을 이루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어린이 방학기간 애독문화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참여를 원하는 다수의 어린이들이 독서교실에 참여하므로 현재보다 확대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방학독서교실의 확대 운영을 위해서는 공공도서관이 방학독서교실의 목적과 성과를 보는 관점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방학독서교실이 선행연구가 제시하는 바와 같이 학습을 위한 도구적 및 기능적 독서가 아닌 즐거운 독서를 지향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겠다. 첫째, 본 연구에서 분석된 4개관의 독서교실 프로그램은 독서의 생활화보다는 독후활동 및 체험활동을 위한 교육 중심으로 시간표가 운영되었음을 확인하였으나 어린이들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독서활동이 중심이 되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고민이 더욱 필요하다. 둘째, 필독도서 중심의 독서교실 프로그램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 필독도서 외에 읽을 책의 선택권을 가지고 독서의 내재적 동기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독서할 수 있도록 장치가 마련하여 안내되어야 하겠다. 현재 권장도서 또는 선정도서 목록을 배포하여 대출을 권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자유로이 열람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시간적 공간적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어린이들이 스스로 개별적인 독서목표를 세우고 성취하도록 지원 장치와 자료를 개발하여 안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독서교실담당 사서가 성취 목표를 결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이루어 독서에 대한 성취감을 가지도록 안내해야 한다. 넷째, 독서자체가 즐거움이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도록 하며 독서에 대한 외부적 보상은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필요 하겠다. 특히, 경쟁을 통한 외부적 보상으로 인해 독서경험 자체보다는 외부적 보상이 목적이 되지 않도록 하는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론적으로는 독서에 대한 외부적 보상을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보지만 현실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타협할 수 있는 수준과 방안이 다각도로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공공도서관이 애독장려를 위해 추구해야할 어린이 방학독서교실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선행연구와 서울시 4개의 공공도서관 방학독서교실 프로그램 분석을 통해 제안해 보았다. 즐거운 독서를 몸소 경험한 어린이독자는 독서의 즐거움을 알기 때문에 독서를 일상적인 여가활동으로 즐기게 되며 이는 장기적으로 학업활동 및 인지활동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이 그러한 즐거운 독서를 경험할 수 있는 사회적 독서의 장으로서 역할을 담당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학교 교육 활동이 중단된 방학기간을 활용한 방학독서교실이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공공도서관이 어린이 애독문화 형성을 위해 방학기간 집중적으로 노력하여 오늘날 여가 활동의 순위에서 점점 밀려나고 있는 어린이 독서활동을 위한 공간과 시간적 기회를 가능한 많은 어린이들에게 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각 도서관별로 현재 방학독서교실프로그램 구성과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프로그램 확대를 고려하여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독서관련 주요 연구결과들이 증명하는 즐거운 독서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1]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2013. 『2013년 독서교실현황보고자료』. 미발행.
- [2] 김수경. 2006. 독서의 본질과 독서프로그램운영.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7(3): 235-263.
- [3] 김수경. 2007. 공공도서관 독서교실 운영방안.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8(1): 61-93.
- [4] 김순남 외. 2012. 『2011년 초등학교생들의 독서실태 진단 및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5] 김은하. 2010. 전문가 협력을 통한 어린이독서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1(3): 373-389.
- [6] 이연옥. 2012. 초등학생들의 독서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3): 293-309.
- [7] 정진수. 2011. 어린이독자의 도서선택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5(1): 417-437.
- [8] 한윤옥, 이연옥. 2008. 공공도서관 청소년독서프로그램의 현황과 과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2(1): 127-153.
- [9] 황금숙, 김수경. 2008. 공공도서관 독서교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매뉴얼 개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2(1): 233-251.
- [10] Alexander, K. I. and Entwisle, D. R. 1996. *In Baltimore beginning school study, 1982-2002*. The Havard Dataverse Network. Retrieved Nov. 20, 2013 from <<http://thedata.harvard.edu/>>
- [11] Barsen, K. and Moore, D. January, 2010. *The importance of summer reading: Public library summer reading programs and learning*. Research Brief 1. The University of the State of New York & New York State Library.
- [12] Cooper, H. et al. 1996. "The effect of summer vacation on achievement test scores: A narrative and meta-analytic review."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66: 227-268.
- [13] Csikszentmihalyi, M. 1991. *Flow: The psychology of optimal experience*. New York: Harper Perennial, 117.
- [14] Cullinan, B. E. 1992. *Read to me: Raising kids who love to read*. New York: Scholastic.
- [15] Dewey, J. 1916. *Democracy and education*. New York, NY: Free Press.
- [16] Elley, W. and Mangubhai, F. 1983. "The impact of reading on second language learning." *Reading Research Quarterly*, 19: 53-67.
- [17] Irving, A. 1980. *Promoting voluntary reading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Paris: UNESCO.
- [18] Greaney, V. 1970. "A comparison of individualized and basal reading approaches to reading instruction." *Irish Journal of Education*, 1: 19-29.
- [19] Gordon, C. A. November, 2010. "Meeting readers where they are: Mapping the intersection of research and practice." *School Library Journal*, 32-37.
- [20] Gordon, C. A. and Lu, Y. 2008. I Hate to Read-Or Do I?: Low Achievers and Their Reading. *School Library Media Research Online* (11). Retrieved Nov. 20 from <http://www.ala.org/aasl/aaslpubsandjournals/slmrb/slmrcontents/volume11/gordon_lu>
- [21] Guthrie, J. T. and Wigfield, A. 1997. Engagement and motivation in reading. In Kamil et al. *Handbook of reading research* 3, 403-419. Mahway, NJ: Lawrence Erlbaum.
- [22] Guthrie, J. T. and Davis, M. H. 2003. "Motivating struggling readers in middle schools through engagement model of classroom practice." *Reading and Writing Quarterly*, 19: 59-85.

- [23] Krashen, S. D. 2003. "The (lack of) experimental evidence supporting the use of Accelerated Reader." *Journal of Children's Literature*, 29: 16-30.
- [24] Krashen, S. D. 2004. *The power of reading: Insights from the research*. Englewood, CO: Libraries Unlimited.
- [25] Kim, J. 2004. "Summer reading and the ethnic achievement gap." *Journal of Education for Students Placed at Risk*, 9(2): 169-188.
- [26] Krashen, S. 2004. *The power of reading: Insights from the research*, 2nd ed. Englewood, CO: Libraries Unlimited.
- [27] Lee, Y. O., Krashen, S. and Gribbons, B. 1996. "The effect of reading on the acquisition of English relative clauses." *IT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113-114: 263-73.
- [28] Lu, Y. L. and Gordon, C. 2007. Reading takes you places: A study of a web-based summer reading program. *School Library Media Research 10*. Retrieved November 20, 2013 from <http://www.ala.org/aasl/aaslpubsandjournals/slmrb/slmrcontents/volume10/lu_reading>
- [29] Malach, D. A. and R. A. Rutter. 2003. "For nine months kids go to school, but in summer this school goes to kids." *Reading Teacher*, 57(1): 50-54.
- [30] Manzo, A. V. and Manzo, U. C. 1995. *Teaching children to be literate*. Fort Worth, TX: Harcourt Brace College Pub.
- [31] Mason, B. and S. Krashen. 1997. "Extensive reading in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System*, 25: 91-102.
- [32] Peterson, K. September, 2013. UK study links kids' pleasure reading to strong school performance. *School Library Journal*.
- [33] Roman, S., Carran, D. T. and Fiore, C. D. 2010. The Dominican study: Public library summer reading program close the reading gap. IMLS Report by Dominican University. Retrieved Nov. 20 from <http://gslis.dom.edu/sites/default/files/documents/IMLS_finalReport.pdf>
- [34] Shin, F. 1998. Implementing free voluntary reading with ESL middle school students-improvement in attitudes toward reading and test scores. In Constantino, R. (ed.). *Literacy, access, libraries among the language minority population*. Lanham, MD: Scarecrow, 225-234.
- [35] Stokes, J., Krashen, S. and Kratchner, J. 1998. "Factors in the acquisition of the present subjunctive in Spanish: The role of reading and study." *IT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121-122: 19-25.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The National Library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2013. *2013 report on vacation reading programs*. Unpublished document.
- [2] Kim, Soo-Kyoung. 2006. "The true meaning of reading and operation of reading programs."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7(3): 235-263.
- [3] Kim, Soo-Kyoung. 2007. "A study of the scheme and operation of reading classroom program in public libraries: A case study of public libraries in Pusan." *Journal of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8(1): 61-93.
- [4] Kim, Soon-Nam et al. 2012. *A study on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reading in 2011 and reading promotion strategies*. Seoul: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5] Kim, Eun-Ha. 2010. "Collaborative network for children's reading program: Making of Bookmagic."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1(3): 373-389.
- [6] Lee, Yeon-Ok. 2012. "Elementary school students attitude toward reading."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2(3): 293-309.
- [7] Chung, Jin Soo. 2011. "A study on children's book selection behavior."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5(1): 417-437.
- [8] Han, Yoon-Ok and Lee, Yeon-Ok. 2008. "A study on young adults' reading programs in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2(1): 127-153.
- [9] Hoang, Gum-Sook and Kim, Soo-Kyoung. 2008. "A study of the development of the manual for 'reading classroom' program in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2(1): 233-251.